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심을 찬양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낮아져야하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일보다 연약한 그 누군가를 보살피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9 년은 학교가 새 건물을 마련하여 옮기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3 년 동안 방치 되었던 건물이라 여기 저기 문제가 너무 많았고, 아주 시골이라 전기도 안들어오고, 인터넷도 안되는 곳이었는데 좌우 충돌하며, 이제는 solar panel 과 Generator 를 돌려서 전기도 공급하고, 커다란 water purification system 을 작동하여 짠 물을 연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었고, 어마 어마한 돈과 거의 9 개월에 걸친 작업으로 인터넷도 거의 (?)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새 건물로 이사를 하며 학생들이 영적 공격을 받아 2 명의 학생들이 귀신이 들려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들도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종종 원인 모르게 아프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루 3 번 예배와, 아침기도, 금식 기도, 금요 철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채플을 소홀히 여기던 학생들의 출석율이 높았졌고, 기도회도 여기 저기 생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창단을 만들고 음악반과 기타반을 만들었고, 새로운 영어 학습법을 통하여 가르치며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 회 졸업생을 배출 한 후 남은 학생들이 약 30 명 정도였으나 현재 120 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학업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 계획

내년에도 동일하게 ㅅ학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고, 교목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을 꼭 시작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학교가 이전을 하며 새로운 곳이고 시골이라 많이 위험하다고 조언을 해서 ㄱ.ㄷ.하며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제가 양육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여 나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과 계속 연락하며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체류를 위해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 저기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옷을 수출하거나, 화장품 수출, 인도 양념 수출 등 여러 가지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초에는 이런 일들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2020 년은 저의 새로운 10 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협력 사로서 아버지께서 보내는 곳을 다니며 최선을 다해 4 억을 해왔습니다. 다음 10 년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1 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드리고 싶습니다.

1. 인도 정부가 종교 자유를 주는 정부로 바뀌길
2. 인도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 총장님과 교수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변질된 모습에서 변화되도록...
4. 저의 체류를 위해 사업계획이 잘 성사되도록...
5. 저와 남편의 건강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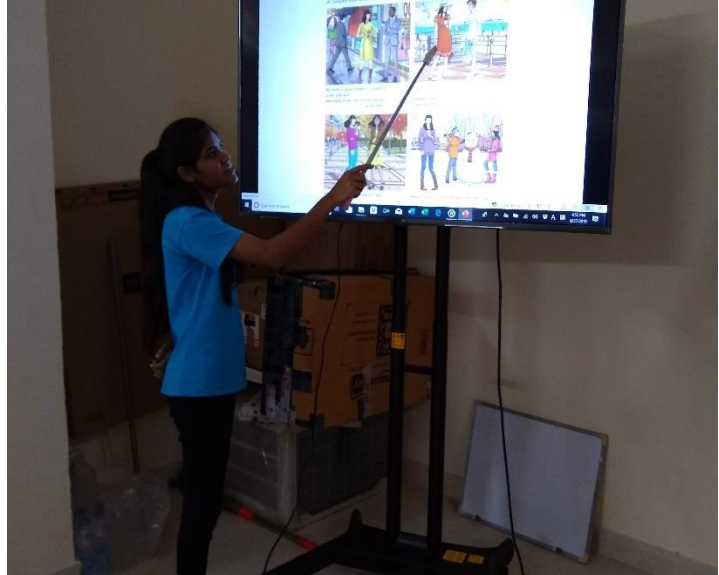
은혜로운 성탄절과 주님안에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서규희



마이클 목사의 교회에 성탄절 선물로 봉고를 기증했습니다. 청년들이 기뻐서 연주하는 모습.



새로운 영어 교수법

합창단의 최초 performance.



양육하던 청년들이 사역하는 모습.